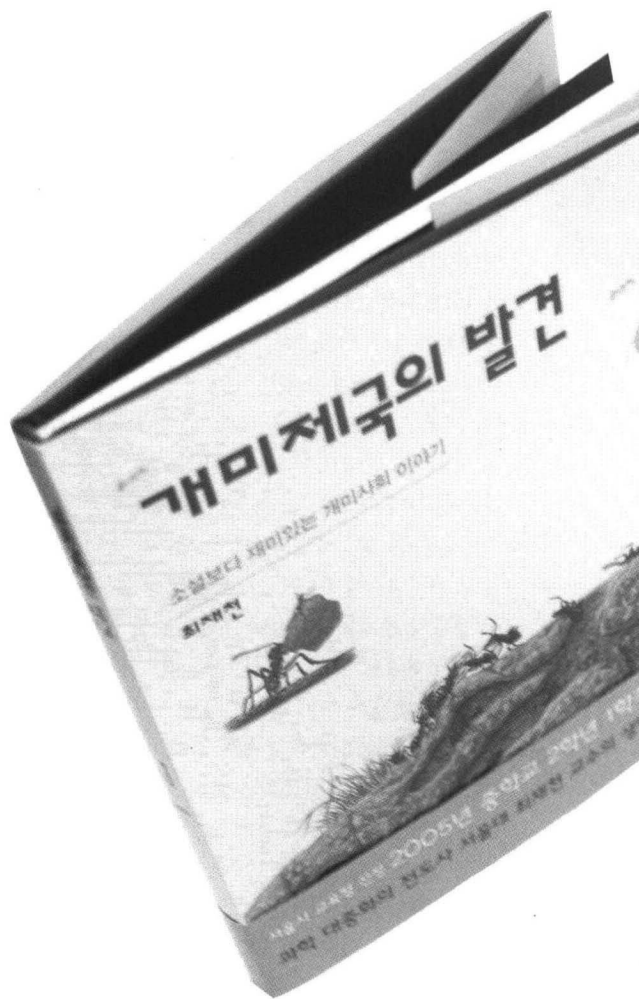


국보급 과학자의 '글맛' 담긴 개미제국 순례기



《개미제국의 발견》 최재천 지음 | 사이언스북스 | 146쪽 | 값 15,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국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개미는 벌목⁸⁾에 속하는 곤충으로서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 세 가지 계급⁹⁾이 있다. 여왕개미가 수개미와 교미해 낳은 알이 잘 발육하면 공주여왕개미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일개미가 된다. 그리고 여왕개미가 짝짓기를 하지 않고 알을 낳으면 그것이 수개미다. 그래서 수개미는 염색체가 반(반수체)이다. (중략) 여왕개미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오뉴월께, 약간의 습도와 바람이 있는 날, 신희비행의 날로 잠고 집 밖으로 나온다. 이집 저집, 주변의 모든 다른 집 수개미들이(근친결혼을 피하기 위해 짝짓기) 여왕개미가 뿜어낸 페로몬 pheromone 냄새를 맡고 흥분하기 시작한다. 웅성웅성, 앓았다 일어섰다 안절부절 못 한다. 여왕개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무나 풀, 또는 높은 바위에 기어오른다. 드디어 여왕개미가 공중을 날듯 뛰어내린다. 바람을 타고 솟아오른 여왕개미는 ‘처녀비행’을 한껏 즐긴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행! 순간, 구름처럼 모여 있던 수놈들이 여왕개미에 돌진하여 여러 마리가 짝짓기를 한다. 불행히도 그런 행운을 가진 수개미는 몇 되지 못한다. 여왕개미는 지그재그로 날다가 수놈과 붙은 채로 땅에 떨어진다. 땅바닥에 닿자마자 여왕개미는 날개를 돌이나 나뭇가지에 비벼 잘라버린다. 장렬¹⁰⁾한 버림이다. 주변을 살펴 적당한 장소를 찾아 땅을 파고 들어가 거기에 여남은 개의 알을 낳는다. 홀로 그것들을 정성껏 키워 새 집안을 일궈나가기 시작한다. 이것들이 커서 밖에 나가 먹이를 물어오고... 여왕개미는 더 많은 알을 낳아 식구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성공할 확률은 1/100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원광대학교 김병진 교수의 ‘과학으로 세상보기’의 옥고¹¹⁾를 필요한 부분만 따서 가감첨삭, 편집한 글이다. 간단히 읽을 수 있는 개미의 일대기(한해살이)가 아닌가. 김 교수는 말 그대로 ‘한국통 개미박사’ 이기에 먼저 소개를 한다.

이에 비하면 《개미제국의 발견》의 저자 최재천 교수는 외국산 개미의 행동학을 더 많이 연구한 편이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동물행동학(動物行動學, ethology)’이라 하고, 큰가시고기의 수놈사랑, 뼈꾸기의 산란행위, 꿀벌의 밀원¹²⁾찾기 등의 연구가 바로 행동학에 해당한다. ‘생태학’이란 말이 넓고 포괄적이라면 ‘행동학’은 생태학의 일부라 생각해도 된다. 최 교수는 바로 생태학자이면서 행동학을 전공했다.

이제 우리는 개미제국(帝國)을 찾아들었다. 제국이란 황제(皇帝)가 다스리는 나라로 왕국(王國)이라고도 한다. 개미제국의 주인인 황제는, 여잔가 남잔가. 당연히 여왕개미다. 얼마 전에 숨을 붙들고 읽었던 산사의 장편소설 《추천무후》가 뇌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개미도 여자다. 수개미는 몇 마리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개미제국은 암놈들의 세상이다! 하기가 우리 사람 세상도 암컷들이(?) 힘쓰는 '암컷제국'인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실은 필자도 이 책을 처음 읽었다. '부럽다'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은 왜일까? 나도 열대여섯 권의 책을 썼지만 이렇게 멋진 것을 내보지 못했다.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서는 마냥 놓지 못하고 쭉 다 읽어나가 버렸다. 맛난 글에 멋진 사진과 잘 그려진 그림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루고 있으니 삼매에, 탐닉치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글은 그 사람'이라고, 직접 체험한 것을 글로 쓰니 현실감이 있고 생동감이 넘친다. 하여, 독자가 가까이 다가간다. 개미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인간사를 버무려주니 말 그대로 영양가 높은 비빔밥이 된다. "강의는 잘 차려진 밥상이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최 교수는 푸짐한 밥상을 차리는 데 선수다. 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의 말은 맛이 없다(語言無味)"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문학성 풍부한 최 교수의 글에는 풋풋하고 은은한 '글맛'이 풍긴다.

머리말에 "과학의 대중화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첫 걸음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과학서적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토를 달고 있다. '과학의 생활화, 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재미나고 쉬운 글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필자도 같이 부르짖는다. '원숭이도 읽을 수 있는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최 교수는 정말 알아듣기 쉽게 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면서 잘도 이끌고 간다.

머리말 말미에는 "이 책에 실린 얘기들은 이제 겨우 창호지에 칩발라 뚫은 구멍으로 들여다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역시 공감한다. 학문의 지평선은 끝이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미의 세계를 환히 들여다보는 듯, 환상의 세계를 지나치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머리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다. 길가에서 개미들의 싸움질을 가끔 봤지만 이사를 가는 놈들도 만난다. 하얀 알을 하나씩 물고 줄을 이어 가는 녀석들

을. 사람들은 큰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이사를 간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그리고 외국 개미의 행동, 생태, 발생, 생리가 우리나라의 것들(120여 종이 된다고 함)과는 얼마나 비슷하고 또 차이가 날까? 등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최 교수는 알고 보면 필자가 가르쳤던 제자들 또래지만 1982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생태학 석사,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하버드대학에서 2년간 전임강사, 터프스대학 전임강사, 미시간대학 생물학과 부교수를 거쳐 지금은 모교인 서울대학 생물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이력이 만만치 않다. 미시간대학엔 필자도 1년 동안 방문교수로 갔었지만 생물학과 교수만도 70명이 넘는 우수한 대학이 아니던가.

책에 자주 소개되는 지도교수 윌슨(Edward O. Wilson)도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로 '생물사회학(生物社會學, biosociology)'이라는 새로운 생물의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다. 그분을 은사로 모신 최 교수였으니 '그 선생에 그 제자'란 말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옳은 말이다.

《개미제국의 발견》에 읽고 싶은 생각이 불뚝 솟게 하는 큰 제목 몇 개를 본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업제도' '일꾼개미의 거대한 지하 버섯농장' '무시무시한 군대개미의 행진' '시녀와 보모에서 노동자와 군인까지' '화학암호 해독하여 개미 등쳐먹는 기생곤충들' '자식도 포기하고 여왕 위해 봉사한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 등등. 이게 어디 개미 이야기인가? 개미란 단어 대신 '사람'을 끼워넣으면 바로 사람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렇다. 사람이 지구에 온 지 4만 년이 지났다면 개미는 8천만 년 전이라고 하니 우리의 대형대묘이다. 그러니 어디를 봐도 우리보다 나왔으면 나왔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개미에서 한 수, 아니 여러 가지를 배울지어다.

사족(蛇足)이란 화사첨족(畫蛇添足)의 준말로 쓸데없는 균일을 하다가 도리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뜻이다. 이 책에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 이야기 등에서 '진디'로 나오는데 필자가 몰라 그런지는 몰라도 '진딧물'이 좋을 듯싶고, 개미 떼를 '군락(群落)'이라 쓰고 있는데, 군락이란 말은 식물에서만 쓰는 용어라서, '군집(群集)'이라고 썼으면 좋을 걸 그랬다. 국보급인 최재천 교수의 더 좋은 글과 더 많은 업적을 마냥 기다려본다. **한민**